면회를 왔다니. 틱틱거리며 T는 뒤에서 말을 걸어왔다. T는 이제 민간인까지는 3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퍽 기뻐하는 듯 보였다. 그 이후론 늘 하던 얘기였다. 너 이제 큰일났다. 군대 오면 05년생 애들한테 존댓말 써야 한다. 그런 식이었고 옷이 그게 뭐냐 머리는 또 뭐며. 이런저런 지적질이었다. T는 꽤나 피자를 빨리 먹었다. 나와 T의 여자친구인 M이 한두조각 먹을 사이에 반 판 정도를 집어삼키고 있었으니. T는 예나 지금이나 그렇듯이 나와는 그닥 의미 있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동기 걔는 잘 지내더냐, 얘는 도대체 성형을 몇 번 한 거냐 하는 얘기를 늘어놓았다. 그 “얘”라는 애가 그녀석의 여자친구와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자주 연남동에 가는 걸 올리는 사이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거나, T는 꽤나 잘 믿는 놈이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게 언제나 그대로 있을 것이라 믿는 놈이었다.

M과 나는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왔다. 칸막이가 쳐진 고급 고속버스였다. 고속버스가 고급이면 뭐 얼마나 고급이었겠냐만은, 반대편 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으니 꽤나 고급이었다. 나는 잠에 들었고 M은 음악을 들었던 듯싶다.

M과 나는 버스를 타고 올라오며 총 네 번 입을 맞췄다. 그 중 세 번 정도는 갈릭디핑소스 맛이 났고 마지막은 가그린 맛이 났다. M은 꽤나 눈치가 있는 편이었다. 그럼에도, 어쩐지 마지막에서도 페퍼로니 조각 맛이 느껴진 것은 비밀이었다.

M과의 사이는, 묘한 사이였다. M과 나는 T가 학교에서 떠나자 몇 달 간은 교류가 별로 없었으나 T의 면회를 가려 몇 번 만나고 하던 사이였다.

M에게 M의 사진을 캡쳐한 것을 보냄.

M과 스파이더맨 3명이 나오는 영화를 보았는데, 어쩐지 심야 영화였다. M은 잠을 자고, 나는 영화를 보았다. M은 만일 토비 매과이어가 나오면 자신을 깨워달라고 했다.

M과 모두가 다 알지만 다 모른 척하는 만남을 가짐.

M의 결혼식.

어쩌면 20년 뒤에, M의 집에 찾아갈 수 있을지도 모를 노릇이야. M의 딸을 보면 그땐 뭐라고 해야 할까? 에그타르트를 주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화장실에서 입에 뭐가 묻지 않았나 보다가 창밖을 봤다. 결혼식장은 어쩐 일인지 마치 베니스인가 로마 어딘가에서 대부호의 5번째 결혼식에 초대받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이었다. 그렇게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아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다. V의 문자는 오지 않았고 T의 군대 선임들인가 하는 사람들은 정장 위에 유광 패딩을 걸치고 전자 담배를 꺼내 들며, 생각보다 M의 친구들이 예쁘지는 않더라 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식장 어딘가가 오그라들고 있었던 것 같다.

은유법이 아니다. 정말로 오그라들고 있었다. 4시간 뒤 나는 식장의 엘리베이터 옆으로 난 좁은 통로에서 I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 그 사람은 어쩐지 소심하게 생긴 남자로 키가 껑충하게 컸는데 늑장 출근한 매니저인 듯 싶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유광 패딩을 입은 남자 셋이 반으로 접혔다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평평해지고 있었다. 그, 일단 주차장으로 가볼까요. 껑충한 그가 물었다. 바보 같은 말이라고. 당연히 식장으로 돌아갈 수 없지 않은가. 나는 어쩐지,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나는 M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식장에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던 게 M이었으니까. 아쉬운 건, 우리가 항상 만나던 도선동 어느 모텔 밖을 보다가 등진 채 누운 그녀 얼굴을 보고 점이 참 많다고 생각하기 힘든 것뿐이지. M 뱃속에 있는 골칫거리가 없어진 게 아닌가.

I는 우리가 도시의 낭만을 찾으러 가야 돼요라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늘어 놓고 있었다. 나는 원래 헛소리는 귓등으로 넘기는 타입이다. I는 운전을 꽤나 잘 하는 듯했다. 덜컹거리는 운전을 하진 않았으니. 말은 참 덜컹거리게 하는 타입이었다. I에 의하면, 그는 이 소설의 작가였고 이번 작품을 통해 도시의 낭만인가 뭔가를 전달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요즘, 미친 사람들이 많다. 도시의 낭만은 자고로, 어느 칵테일바에 가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남자와 함께 어느 밴으로 갈아 타고 중간에 멈춰 빅맥을 먹으며 고민한다.